

# 미래지향적 100만 광역도시 인프라 조성 집중

## 전주시, 광역도시·도시개발 분야 7대 역점시책 제시

전주시가 올 한해 종합경쟁 MICE 복합단지 조성에 본격 착공하는 등 미래지향적 100만 광역도시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초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11일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신년 브리핑을 통해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 100만 광역도시 인프라 조성'을 비전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역도시·도시개발 분야 7대 역점시책을 제시했다.

7대 역점시책은 △전주의 심장부, MICE 복합단지 조성으로 '강한경제전주' 초석 마련 △성공적인 민자유치 개발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상생발전도모 △지역가치 향상을 위한 효율적 재개발로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 △선제적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속도감 있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공영개발을 통한 성장동력 마련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활력을 불어넣는 주민복지 우선 지역맞춤형 도시정비 추진 △취약지구개선 등 거주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이다.

먼저 시는 올 상반기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하는 한편, 백제대로 일원에 지하차도 개설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MICE 복합단지 조성으로 유발될 교통량 증가에 따른 문제에도 대비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지역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1회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전시컨벤션센터 운영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MICE 전담조직 설립도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또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 주택건설사업 통합

심의 등을 거쳐 연내 본격 착공에 돌입할 수 있도록 단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고,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심사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여기에 시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 점검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을 통해 거주자의 주거 안전을 돕기로 했다. 또, 2035 전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 기반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개발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시는 에코시티 인근의 전주대대 이전사업의 경우 지난해 농지전용협의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후속 절차인 실시계획을 마무리하게 된다. 시는 전주대대 이전 부지와 인근 부지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한다.

전주교도소 이전·신축 사업 또한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27년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교도소 이전에 따른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 사업도 오는 3월 공사에 착수, 내년



전주시는 11일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신년 브리핑을 통해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 100만 광역도시 인프라 조성'을 비전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역도시·도시개발 분야 7대 역점시책을 제시했다.

상반기 중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공영개발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마련과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시는 중·장기 공영개발사업의 체계적 기반 구축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발굴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국토부·119와의 협의를 통해 '전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관련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효천지구 연계도로 2단계 구간(산천교~해성교차로) 확장공사'와 '만성지구~기지제 보행육로 사업'도 연내 공사를 완료해 광역교통망도 확충된다.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는 큐뮤필름 제2스튜디오 등 기업 유치 및 부족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 관련 행정절차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올해 청년과 사회적약자를 위한 수요 맞춤형 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주 청년민원주택 '청춘★별채'

는 상반기 입주자 모집을 거쳐 총 23호를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하반기에는 팔복동에 일차연계형 사회주택 70호(창업지원 24호, 중기근로자 46호)를 건립하기 위한 공사가 시작된다.

이외에도 시는 △공급안고 일일 도시재생사업 △전주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 △인후반촌 도시재생사업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도시재생사업 등 시민 생활과 밀착된 다양한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도 꾸준히 전개하고, 낙수정 마을과 전주고인근 경원왕궁지구에서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새마을을 조성 사업이 추진돼 주민들에게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제공하게 된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100만 광역도시에 걸맞은 대규모 도시개발과 지역맞춤형 도시정비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전주가 지방 도시를 넘어,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미래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완산동 용머리 안녕 기원제 개최

## 지역 번영·주민 안녕 기원

11일, 완산동 완산칠봉 인근에서 정월 대보름 축제의 일환으로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완산동 용머리 안녕 기원제가 열렸다.

안녕 기원제는 지역의 전통적인 의례로, 정월대보름을 하루 전날 개최되어 완산동 지역의 번영과 주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날 행사는 완산동 마을계획추진단(단장 김명자)에서 주최하고 완산용머리발전위원회(위원장 김중태)에서 주관하여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완산동 관내에서 흥을 돋우는 풍물 지신밟기 행사를 시작으로 개최되었다.

행사는 마을을 대표하는 어르신과 주민들이 참여하여 제례를 올리고, 이웃들과 부럼을 나누어 먹



는 순서로 이어졌고 완산동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우회 등 자생단체의 적극 협조하에 안전하게 성료 되었다.

행사를 지원한 서성곤 완산동장은 "용머리 안녕기원제는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정신을 다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행사"라며 "앞으로도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의회, '전주미래문화도시포럼' 개최

전주시의회는 11일 전주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미래문화도시 전략 수립을 위한 '전주미래문화도시포럼'을 최서영(진북, 인후1·2, 금안1·2동), 신유진(조촌, 여의, 혁신동) 의원 주최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래 문화 도시와 미래 인재 양성'이란 주제로 전주 팔복 예술공장에서 열렸다. 포럼에는 저스피츠재단 오희영 대표이사, 갤럭시아 퍼레이션 안영노 이사, 공학도서관 송용남 대표 등 각계 인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오희영 대표이사의 '저작권 수익 기부 및 선용과 글로벌 인재 양성', 안영노 이사의 '생산형 AI 등을 활용한 예술 접목 및 인재 육성', MYSC 김정태 대표의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육성과 펀드 투자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또 '미래 문화 도시 지역 현안 공유' 주제의 종합토론과 '전주 미래 문화 도시 준비 방안 모색'에 대한 자유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포럼을 주최한 의원들은 "전주시가 미래 문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적인 논의를 넘어 예술과 기술의 융합으로 지역 문화의 가치를 증대시켜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내외 기관 및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물론 지역 문화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 덕진권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개소

##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

전주시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이끌 현장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시는 11일 덕진권역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에서 소영식 도시재생지원센터장과 덕진동 주민자치위원장, 전북대 상인회 소속 상인, 인근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지원센터의 개소식을 가졌다.

시가 지난 2021년 경제기반형 유형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중인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은 전주종합경기장과



전북대 구정문 일대에 미중물사업 예산 517억 원을 투입해 AI 기반의 첨단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해 구

도심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구역 내의 빈 점포를 리모델링해 조성된 현장지원센터에는 서성원

센터장을 비롯한 3명이 상시 근무하게 되며, 사업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사업 시행 과정을 총괄·조정하는 등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을 이끌게 된다.

특히 센터는 △거버넌스 기반 아이디어 실증 단지 구축(G-Town) △친환경 스마트 거리 조성 △창업 문화거리 조성 등 9개 미중물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과 주민 간의 가교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모아 보다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내 다양한 도시재생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덕진권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 찾아가는 틈새학습' 평생교육 참여 소모임 모집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평생학습도시인 전주시가 올해도 시민들의 문 앞까지 찾아가는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21일까지 2025 전주 시 찾아가는 틈새학습'에 참여할 15개 소모임을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틈새학습'은 전주시민 또는 전주시 소재 사업장의 재직자로 구성된 7인

이상이 모여 강좌를 신청하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프로그램을 학습할 수 있도록 운영 강사를 지원하는 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 서비스이다.

시는 올해 틈새학습 사업을 통해 상반기 15개와 하반기 10개 등 총 25개의 소모임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소모임에는 1달당 16시간씩 희망 프로그램의 강사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파견된다. /김욱기 기자

###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위자였다.

#### 선화당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날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금> 전주시 제공

#### 관공각

#### 내아